

전남대병원 역사, 타임캡슐에 담았다

개원 111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 영상·사진·희망편지 등 131점 담아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111년의 역사자료를 타임캡슐에 담았다.

전남대병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의료혁신을 대비해 지나온 111년의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술 100년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자 지난 1일 '전남대병원 개원 111주년 및 전남대어린이병원 개원 4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을 개최했다.

〈사진〉

타임캡슐 봉인식은 안영근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주요 보직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앞 화단에 서 열렸다.

타임캡슐에는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를 전남대병원, 전남대어린이병원, 전남대치과병원의 역사 및 주요 업적을 기념하는 영상·사진·서류 등 총 131점의 자료를 USB와 실물로 담았다. 타임캡슐은 원통형으로 내·외부 2중 용기로 제작됐고, 수장품 보관을



위해 진공 처리돼 지하 2m에 매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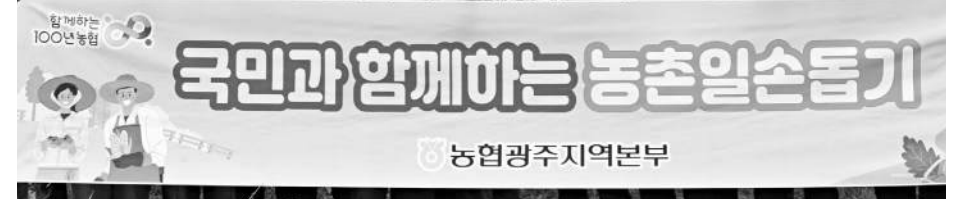
타임캡슐에는 '1910-2021 111주년'이라고 쓰여진 명판이 부착되고, 매설된 곳에는 'VISION 2030, 미래 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뉴스마트 병원이 된다'는 병원 비전이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진다. 봉인된 타임캡슐은 전남대병원 새병원 준공연도의 개원기념일에

개봉될 예정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남대병원의 찬란한 역사는 자부심을 갖게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면서 "타임캡슐에 우리의 열정을 담아 또 다른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오치동서 대봉감 수확돕기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와 동림동 푸른마을주공3단지 봉사단(회장 채봉주), NH농협손해보험 광주지역총국 임직원 등 25명은 2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농협 조합원 농가(1만3200㎡)에서 대봉감 수확을 도왔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에펠드 뮤직, 무등산 생태보호 음악 콘서트 진행



사회적 기업 에펠드 뮤직(대표 이현경)은 최근 무등산 생태보호를 위한 '꿈틀꿈틀 음악 콘서트'를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변화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에펠드주니어플루트앙상블과 조민정 피아니스트, 윤지혜 첼리스트 등이 참여했다. <에펠드 뮤직 제공>

광주전남적십자, 안전강사봉사회와 우정선물 제작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안전강사봉사회, RCY와 함께 북구 마곡동 지사 앙리뒤낭홀에서 우정의 선물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안전강사봉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 활동에는 안전강사봉사회 20명, RCY단원 20명이 참여해 선물 200박스를 제작했다.

선물은 노트, 연필, 색연필, 필통, 수첩 등 10가지 학용품으로 구성했다. 광주지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적십자 안전강사봉사회 노경석 회장은 "안전강사봉

사회와 RCY단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선물 제작을 진행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신·영화학원 설립

이경수 세한대 명예총장 별세



학교법인영신·영화학원 설립자인 이경수 세한대 명예총장이 지난 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1929년 나주에서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목포기계공고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거쳐 목포과학대학교 초대 총장 및 세한대 총장(초대, 3대)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목포 유달리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한 의사이자 학교법인 영신·영화학원을 설립한 교육자였다. 영신·영화학원은 세한대학교,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목포과학대학교,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와 목포영화중학교 등 5개 교육기관을 지니고 있다.

목포중앙병원, 목포재활요양병원, 전남중앙병원, 목포노숙자병원, 광주중앙병원 등을 설립해 의료환경 개선과 무료진료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0 운동맛집 5분 레시피 55 UHD 숨터	00 달리와 감자탕(재)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주자기갑스3	00 애니갤러리 30 스페이스 동보보감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방과 후 셉템 프리퀀시 오온영의 등교 전 망설임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오세모
⑬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키스 더 유니버스 우주콘서트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⑮	10 어린이 동물티비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키오카(재) 30 TV 유치원	20 뽀빠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본 좋은 날(재)	
⑯	00 사사건건	00 UHD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종알종알 돌돌이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내고향 전파(재)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티마스페셜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⑳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3		30 KBC 8 뉴스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달리와 감자탕	00 구해줘! 속소	00 골때리는 그녀들
㉒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2021 청원 K-POP 월드 페스티벌	30 라디오스타	40 백종원의 골목식당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㉔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열린 TV 시청자세상(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상어 울리와 율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활속 워트지 해결단
07:00 낭랑고 나라, 코코몽	12:10 극한직업	19:05 미스터 마구
07:15 출동! 슈퍼윙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EBS 다크프라이미	19:50 건축탐구 - 집
07:45 최고의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힐링 아시아 -산촌 별곡, 베트남 소수부족>
08:00 당동맹 유치원	15:25 클래식 e	21:30 한국기행 <그 인생 탐나도다, 제주 3부 목화 오름 그 사나이>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마사와 곰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00 시몽	16:15 개구쟁이 조이	23:05 바닷가 사람들
09:15 봉구야 말해줘3	16:30 당동맹 유치원(재)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득이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3일(음 9월 29일 乙卯)

子	丑	寅	卯	辰	巳
<p>36년생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48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줄 수 있다. 60년생 임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보루로써는 충분하지만 큰 기대는 금물이다. 72년생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이 절실할 때이다. 84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속도감도 중요하다. 96년생 영향력 하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24, 76</p>	<p>37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49년생 꼭 만나야 해결 되는 것만은 아니니 다양한 수단을 활용 해보라. 61년생 코스를 이탈하면 고생길만 험할 뿐이다. 73년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 85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97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79</p>	<p>38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50년생 과감하게 펼쳐버리고 확실히 벗어나야 한다. 62년생 과거사가 현재까지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덮어둘 일이 있다면 끝까지 신중 써라. 74년생 정반대의 판도로 비화된다. 86년생 반복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98년생 소망했던 바를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21, 64</p>	<p>39년생 평생의 신뢰 관계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다. 51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획기적인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63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75년생 객관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87년생 기정사실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정확히 해야만 후회가 없다. 99년생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2, 98</p>	<p>40년생 전체적으로 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52년생 요령껏 해소 할 수 있어야겠다. 64년생 우선 잘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라. 76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는 법이니 소박함에 정성을 다하라. 88년생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00년생 상대의 배려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50</p>	<p>41년생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보충하여 덧 붙일 필요가 있겠다. 53년생 형세의 복잡다단함을 먼저 헤아려 볼 일이다. 65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77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89년생 의외의 인연이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01년생 실속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 16, 80</p>
<p>42년생 아끼려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54년생 믿었던 바에 허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66년생 길질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78년생 단순한 비교는 오만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90년생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완성이 높아질 것이다. 02년생 목격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1, 87</p>	<p>43년생 확실히 유지하고 있어야만 활용하게 된다. 55년생 침착하게 대응 해나간다면 오히려 활로가 된다. 67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한만 나타난다. 79년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91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모여 들겠다. 03년생 여백의 아름다움이 훨씬 빛나리라. 행운의 숫자 : 14, 75</p>	<p>32년생 유능한 이들과 함께 길사를 도모할 수 있겠다. 44년생 정해진 일이나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6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68년생 개괄적인 파악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80년생 행령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92년생 한 번에 한정된 것이니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03, 66</p>	<p>33년생 길흉이 바뀌어가며 변화무쌍하다. 45년생 참으로 귀찮고 접하게 될 것이다. 57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슬모가 없다. 69년생 예상 했던 대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81년생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줄 것이다. 93년생 현실 여건에 착실히 순응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할만하다. 행운의 숫자 : 07, 77</p>	<p>34년생 원인 요소부터 제대로 파악해야만 승수가 가능해진다. 46년생 노파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8년생 육신대로 될 일은 아니니 절대로 집착할 필요는 없다. 70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82년생 현저한 행운도 없지만 대고 없이 무난하다. 94년생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4, 58</p>	<p>35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7년생 대국적으로 임해야 실속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다. 59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번잡하고 가득한 곳에 임하라. 71년생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83년생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 올 수도 있다. 95년생 평탄하고 순조로운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08, 90</p>